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6. 2. 27.
- 제공자 : 농림부 가축방역과
- 과 장 : 김 창 섭
- 사무관 : 조 옥 현
- 전 화 : 500-1938

이 자료는 2006년 2월 2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- 3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

- 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“특별방역기간”으로 설정, 강도 높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의 『구제역 특별방역대책』을 2.28일 발표하였다.
- 구제역은 아시아, 아프리카, 남미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고,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, 러시아 등지에서 확산 추세에 있어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봄철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.

※ 구제역은 소·돼지·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피해 농가는 물론 동물과 축산물의 교역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시 하는 전염병이다.

-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02년도에 발생되어 4,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다.
- 구제역 증상은 입·혀·젖꼭지·발굽 등에 물집(수포) 형성, 심한 거품 섞인 침 흘림 등

-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2.24일 지방자치단체·생산자단체의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『'06년도 구제역 특별대책 회의』를 가졌으며, 관세청·해양경찰청·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협조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- 이번 대책은 구제역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경검역 조치, 병원체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장에서 실시하는 소독·예찰활동 등 국내방역 조치 그리고 질병이 발생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방역체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.
- 특히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청정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와 농가에서 구제역 위협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어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.
- 국경검역 조치로는 병원체의 유입 매체로 알려진 수입건초와 해외여행객의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고, 해외여행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불법 휴대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한다.
- 수입건초는 해당 국가에서 1차 소독, 국내 도착후 2차 소독을 실시하고 병원체 검사후 합격품만 반입을 허용한다.
- 모든 해외 여행객의 신발은 입국장(232개소)에 설치된 발판소독조(394개)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,
- 해외 여행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육류는 현장 검역관(86명)과 검역탐지견(21두)을 기동 배치하여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, 불법 휴대육류 반입자에 대한 범칙금(10만원) 처분도 철저히 적용하기로 하였다.

□ 국내방역은 이미 매주 수요일을 『전국 일제소독 및 질병예찰의 날』로 정해 농장에서 강도 높게 소독과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, 소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중앙 점검반, 시·군 교차점검반 등을 운영하여 과태료(300만원 이하) 처분도 강화키로 하였다.

○ 전국 마을단위로 편성된 3,880개의 공동방제단을 통해 소규모 또는 노령 축산농가(310천호)를 대상으로 농장 소독을 지원해 주고 이에 필요한 약품비, 인건비 등 194억원을 투입한다.

□ 만약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, 이미 마련되어 있는 “표준행동요령(SOP)”에 따라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이동통제, 가축 살처분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

○ 시·군별 가상 방역훈련 실시, 방역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하고

○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생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,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소독·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은 외국의 농장 방문과 외국산 육류를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자제해 주도록 당부하였다.

※ 붙임 : '06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개요

<참고자료>

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개요

I. 국내·외 발생동향

- 아시아·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, '03년부터 발생 국가수는 감소 추세로 전환
 - 발생국가수 : ('01년) 65개국 → ('02) 59 → ('03) 51 → ('04) 52
 - 각국에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이 감소
-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·러시아 및 북한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, 특히 중국에서는 확산 추세인 것으로 분석
 - 중 국 : 지난해 4월 산둥성에서 발생(공식발표), 강소성·신강·하북성·청해성으로 확산, 금년 1월 녀하·강소성에서 발생
 - 러시아 : 동부지역(Amur강 주변) 및 서부지역(시베리아)에서 발생
 - 북 한 : 함북 회령·무산·온성 지역 등 두만강 인접지역에서 발생
- 우리나라는 '00년 15건, '02년에 16건 발생이후 현재까지 청정화 유지

구 분	2000년	2002년
발생상황	- 기간: 3.24~4.15 (22일간) - 건수: 15건(소 15건) ※ 경기 파주·충남 홍성·충북 충주 등	- 5.2~6.23 (52일간) - 16건 (돼지 15건, 소 1건) ※ 경기 안성·용인, 충북 진천 등
발생원인	- 수입건초, 해외여행객	- 외국인 근로자
국내 종식	- 예방접종 중단후 1년 - 청정국 회복 : '01.8.31	- 이동제한 해제후 (8.14) - 청정국 회복 : '02.11.29
피해액	- 3,006억원(살처분보상금 : 71)	- 1,434억원(살처분 보상금 531)

II. '06년 추진계획

〈 기본 방 향 〉

- ◇ 철저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으로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
 - 잘된 사항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보강 및 신규 발굴
- ◇ 위험기간인 3~5월을 「특별대책기간」으로 설정, 운영
 - 그 이외의 기간은 평시방역체계로 전환, 지속적인 예방활동 추진
- ◇ 구제역 긴장감을 강화,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 유도

1. 병원체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

① 병원체 유입경로별 차단 검역활동 추진<강화>

- 수입건초 : 위험국산은 2회소독 및 정밀검사후 반입, 탐지견 2두 신규
- 해외여행객 신발 소독 : 입국장에 발판소독조(232개소, 394개) 운영
- 휴대축산물 검색 : 검역관·탐지견 기동배치 및 발생국 노선 집중
- 남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및 밀수 축산물 단속 강화

② 휴대축산물 반입 및 농장방문을 자제를 위한 홍보 전개<계승>

③ 국경검역 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<계승>

④ 해외 발생동향 정보수집 체계 강화<계승>

2. 농장 발생 예방을 위한 국내방역

⑤ 「전국 일제소독 및 가축질병 예찰의 날(매주 수요일)」, 소독과 예찰활동을 정례화<계승>

⑥ 외국인 연수생 및 중국 현지 종돈장 경영자 관리강화<계승>

⑦ 농장·축산시설의 소독실태 단속 및 위반업체 처벌<계승>

3.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긴급 방역체계 확립

- ㉘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 운영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<보완>
- ㉙ 중앙단위 가상방역훈련(CPX)을 실시, 위기 대응능력 제고<신규>
- ㉚ 지자체별 가상방역훈련(CPX) 실시, 초동 대응능력 배양<계승>

4. 구제역 긴장감 유지를 위한 교육·홍보 등 강화

- ㉛ 특별대책기간 시작과 동시에 대대적인 교육·홍보활동 전개<계승>
- ㉜ 지자체·생산자단체의 교육·홍보상황 점검 및 독려<신규>
- ㉝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 시·군간 교차점검 실시<계승>

5.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추진 유도

- ㉞ 가축방역 특별포상제를 실시,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<계승>
- ㉟ 가축방역 공무원 및 공동 방제단장에 대한 사기 진작 지원<계승>
- ㊱ 가축방역사업 종합 평가대회 및 선진기술 세미나 개최<신규>

V. 향후 추진계획

- 국무회의 보고 : '06. 3. 7(화)
- 특별방역대책 추진 : 3~5월
-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평시방역 체계 전환 : 6월